



박노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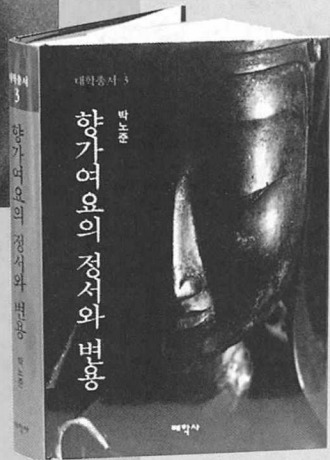
향가와 속요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학계에서 깊이 연구돼 왔다. 지금까지 쏟아져 나온 향가 관련 논문만 해도 2천여편을 넘어선다. 속요 관련 논문 역시 이에 못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향가와 속요 연구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면에 내재해 있는 창작 동기 및 그 과정을 밝히거나, 불교적 사상과 화랑도의 관점 등 역사적인 시각에서 살피는 사회문화학적 방법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향가와 속요의 문학적 측면은 연구에서 소외됐던 것이다.

향가와 여요의 문학적 특징 살펴

박노준 교수(64, 한양대 국문과)가 펴낸 《향가여요의 정서와 변용》(태학사)은 향가와 속요의 문학적 특성을 정면으로 고찰한 책이라는 점에서 이채롭다. 이 책에서 박교수는 향가와 속요 연구도 배경 연구에서 탈피해 문학적성을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향가와 속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작자나 배경 위주로 진행돼 왔다. 요즘의 논문을 읽다 보면 향가 논문인지, 불교학 논문인지 종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역설적이게도 연구자들이 향가와 속요를 변두리로 몰아낸 셈이다.”

이 책의 제1부 <정서>는 향가와 여요, 여요와 사실시조의 대비를 통해 향가와 여요의 시적 정서를 꼼꼼히 해명하고 있다. 박교수는 이와 같은 비교 연구를 통해 향가의 정서적 특질을 평담



태학사/A5신/522면/22,000원

향가, 우리 시문학의 거대한 뿌리

《향가여요의 정서와 변용》 펴낸 박노준 교수

향가와 여요는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연구돼왔지만 배경연구에 지나치게 함몰된 한계가 있었다. 박노준 교수의 이번 저작은 향가와 여요의 문학적 본질을 심도 있게 탐색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향가와 여요를 변용해 현대시로 창작한 시인들을 통해 전통과 현대의 맥을 이었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平淡)으로 결론내린다. <원가>와 <모죽지랑가>에서 볼 수 있듯, 향가에는 간절하지만 걱정적이지 않고, 담백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작품에 드러나고 있다. 반면, 속요는 향가와와는 전혀 다른 정서적 양상을 보여준다. 속요는 감정의 여과 과정을 생략한 원초적인 걱정 상태를 띠고 있다. 속요가 격량이 이는 계곡의 물살이라면, 향가는 일렁임 없이 잔잔한 깊은 호수인 것이다.

“향가의 정서적 특징은 신라인의 낙관적인 세계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고려인들의 세계관은 비관적이었다. 속요의 모태가 민요며 주로 애정문제를 다뤘다는 점도 속요가 격한 언술과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향가에서 발원한 우리 시정신

향가와 속요는 당대의 문학적 현상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제망매가> <원왕생가> 등의 향가에서 느낄 수 있는 서정성과 속요의 애잔하고 처연한 정한(情恨)은 사실시조를 거쳐 현대시까지 흘러들었다. <헌화가>를 변용해 <수로부인의 얼굴> <수로부인은 얼마나 이뻐는가>를 지은 서정주를 비롯해 신석초, 박제천, 윤석산, 이진배, 박희진, 이진청 등 오늘날의 많은 시인들이 ‘신향가’와 ‘신속요’를 생산했다. 박교수는 현대시로 재창작된 이들 작품과 향가여요의 대비를 통해 향가여요의 수용 양상을 추적한다. 그리고 향가에서 출발한 우리 시정신은 고려속요와 사실시

조를 거쳐 마침내 현대시에까지 녹아들었다고 결론 내린다.

“향가는 우리 시문학의 뿌리자 모태다. 현대시의 비유법은 향가의 계승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향가가 지닌 교술성은 훈민가 계통의 평시조로 이어졌고, 개화기 시가와 참여시를 비롯한 현대시 일부에도 계승됐다. 속요의 시적 발상과 푸념, 뉘트리들은 초창기 현대시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인들이 고전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향가나 속요를 현대시로 되살려낸 일부 시인들의 노력은 문학적 성취도를 떠나 그 공(功)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박교수의 생각이다. 하지만 고전의 품격과 원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나친 변용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는다.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고전은 학자들의 서재에서 먼지에 덮여 잠자고 있었을 것이다. 고전의 변용과 재창작은 그 자체만으로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고전 문학의 아름다움을 현대어법에 맞춰 재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박교수는 우리 학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한다. 고전을 변용해 현대시로 재창작된 작품이 쌓이는데도 학계에서는 연구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전문학 전공자인 그가 현대시로의 ‘모험’을 감행한 까닭이기도 하다. — 최갑수 기자